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원도심 활성화 나선다

유관기관 모이는 상생협의회
“지역경제 대수술 필요한 상황”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지역화폐 할인 등 소상공인 지원

순천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로 시름이 깊어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순천시는 올해 1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11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휴가철 소비가 급증하는 8월을 골든 타임으로 잡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유관 기관, 산단, 대형 유통업체, 지역 기업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지역 경제를 위한 지혜를 모을 방침이다.

8월 1일 순천시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관·단체장 및 업주들과 함께 지역 경제 회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순천시의회, 이마트·농협 등 대형점포 대표, 금융기관장 및 소상공인 지원 기관장, 산업단지 대표, 청년 창업가와 여성 기업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순천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高’로 시름이 깊어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구도심인 순천시 중앙동에서 문화행사가 열렸다.

순천시 제공

소통하는 지역경제 상생협의회를 공식 발족한다.

시는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 지원,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 정책자금 대여 등 시행 중인 지원책을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과 개선 대상 규제,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에게는 △대형점포 내 지역 소

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존 설치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운동 △읍면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등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심폐소생술을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8월 1일부터 2개월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올려 특별판매한

다. 지역화폐 구매율·사용율을 높여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판매를 통한 내수진작 효과는 순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도 지역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들부터 발 벗고 나서서 순천사랑상품권 구매를 약속하는 약정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시 출연금 24억원)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던 국비에 시 지원이 더해져, 최대 10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순천시는 지난 5월 3일 상생토크의 첫 주제로 ‘원도심 활성화’를 선정하고, 도심의 상주인구가 급감하는 원도심 공동

화, 상권붕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원·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차원에서는 상생토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상권활성화 협의회와 함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청년 문화 버스킹, 포토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건물주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추후 신청사와 시민광장이 조성되면 상권과의 연계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콘텐츠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순천시는 ‘K-디즈니 순천’을 비전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인 원도심에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금 순천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깊게 주름살이 패어 있어 간단한 미봉책이 아닌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여러 지원을 한군데에 모아 근본적인 도시 구조를 바꿔내고, 짝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 나가는 모습을 순천에서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순천시, 피서지 인근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골, 선암사 등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 인근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

해 위생적으로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소의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한다. 또한, 지역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절 서비스에 대한 현장 지도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업소의 가격표 게시와 청구 금액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영업주들에게 당부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시설물에 ‘신규 사물주소판’ 부착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 거치대, 공중전화, 비상소화장치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시설물 32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올해 상반기 부착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적용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268개소) △주차장(220개소) △공중전화(195개소) △전기차충전소(84개소) △비상소화장치(73개소) 등 총 1139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후 사물주소판을



부착했다.

사물주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없는 도로나 각종 시설물 근처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찰서 및 소방서에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왕조2동 한마음 물축제 개최

왕조2동 주민자치회(회장 조평훈)는 8월 3일 수매골공원(중흥3차 후문)과 공영주차장에서 한마음 물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마음 물축제’는 3일 오전10시부터 수매골공원과 공영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 개회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수

영장 슬라이드, 물풍선 던지기, 난장 물총싸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특히 개회퍼레이드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입장하면 어른들이 물총을 쏘며 군대 경례방식으로 환영해 주는 방식이어서 더위에 지쳤을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달 30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정원위케이션센터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하반기 정기인사서 팀장 보직을 받은 직원들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장, 팀장 보직자와 면담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달 30일 순천만국가정원 내 정원위케이션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최초로 팀장 보직을 받은 직원들과 중간간부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서 시장은 조직에서 이제 막 관리자가 된 21명에게 실무자 때와 달라진 팀장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팀의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팀원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팀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팀장들은 한 달 동안 팀장이 되어 느낀 현장의 목소리와 고충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노관규 시장은 “팀장이라면 조직이 움직이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무슨 업무를 맡더라도 예산의 흐름을 알고 목적에 맞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해야 하며, 실력을 갖춰 어려운 일의 해결책을 내놓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들은 “직원일 때

와 달라진 역할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으며,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현안 사항들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장님의 모습에 놀랐다”며, “현장행정과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노관규 시장은 모든 참석자에게 팀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침서로써 의미 있는 도서를 한 권씩 선물했다.

이 도서는 팀을 이끌고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스킬과 전략을 담고 있어, 새로운 팀장들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검증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사유가 발생한 2706필지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지형지세,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